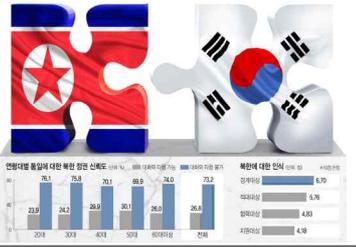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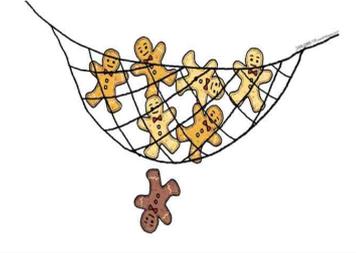


2과 다름이 틀림은 아닙니다 (학생용)

1. 마음 열기

■ 포토 스탠딩 토론 : 공동체의 상실과 파괴(다름이 틀림은 아닙니다)

 <p>#BREXIT</p>	 <p>AMERICA FIRST</p>																	
①	②	③																
	 <p>성별 남녀성격차 남녀성격차 남녀성격차</p>																	
④	⑤	⑥																
 <p>베이비붐 세대 X세대 밀레니얼 세대 Z세대</p>																		
⑦	⑧	⑨																
																		
⑩	⑪	⑫																
		 <p>향후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이는 갈등은 무엇인지요? (단위: %)</p> <table border="1"> <tr> <td>계층</td> <td>32.2</td> <td>연대</td> <td>19.1</td> <td>이념</td> <td>18.9</td> <td>세대</td> <td>8.7</td> <td>공동생활</td> <td>6.9</td> <td>다문화</td> <td>5.7</td> <td>노사</td> <td>5.4</td> <td>지역</td> <td>3.1</td> </tr> </table>	계층	32.2	연대	19.1	이념	18.9	세대	8.7	공동생활	6.9	다문화	5.7	노사	5.4	지역	3.1
계층	32.2	연대	19.1	이념	18.9	세대	8.7	공동생활	6.9	다문화	5.7	노사	5.4	지역	3.1			
⑬	⑭	⑮																

1)2)3)4)5)6)7)8)9)10)11)12)13)14)15)

포토 스탠딩(Photo standing)은 사진을 활용해서 자기 소개를 하거나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토론입니다. 사진을 보여준 후 이를 통해서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끌어냅니다. 사진은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을 수도 있지만, 1장의 사진을 보면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사진을 통해서 주제와 관련한 연상 작용을 하면서 창의적인 사고가 가능해지고, 이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기발한 아이디어 등으로 인해 토론 분위기가 밝아집니다.

■ 포토스탠딩 절차

- ① 주제를 제시한다 : 공동체의 상실과 파괴(다름이 틀림은 아닙니다)
- ② 모둠별로 사진을 제시한다(모둠 편성이 어려우면 개인별로 한다)
- ③ 학습자는 주제에 맞는 사진을 선택한다(1장-3장까지 가능).
- ④ 모둠원에게 자기가 고른 사진을 보여주면서 사진과 주제의 연관성을 설명한다.
- ⑤ 모둠에서 가장 좋은 설명을 한 사진을 선택한다.
- ⑥ 자기가 선택한 사진에 대해 선정이유를 활동지에 적는다.
- ⑦ 모둠별로 선택한 가장 좋은 사진에 대해 발표자가 설명한다.
- ⑧ 학습자들은 발표를 들으며 가장 좋은 설명을 한 모둠과 사진 내용을 활동지에 작성한다.
- ⑨ 모든 학습자의 발표가 끝나고, 활동지 작성이 끝나면 모둠 내에서 돌려본다.

[활동지] 토론주제: 공동체의 상실과 파괴 (다름이 틀림은 아닙니다)

• 나는 왜 이 사진을 선택했는가?

• 가장 좋은 설명을 한 모둠과 사진 내용을 작성하세요.

• 토론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을 적어봅니다.



누군가 "어디서 왔나요?"하고 물어볼 때마다 디오게네스가 "나는 세계의 시민이오."라고 답했다고 한다.

'세계의 시민'을 영어로 옮기며 '코스모폴리탄'이다.

디오게네스는 스스로를 '코스모스(우주)'에서 왔다고 했다. 한 나라도 아니고, 지구도 아니고, 우주를 품은 디오게네스에게는 출신이나 인종의 구별은 무의미했던 것. "나는 우주에서 왔다."는 디오게네스의 대답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시민 사상, 코스모폴리타니즘의 시원이다.¹⁶⁾

21세기에 우리가 직면한 가장 긴급한 이슈는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세계 속에서 ‘함께 살아가기’란 참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성별, 인종, 종족, 계층, 성적 성향, 시민권/국적, 종교 등 나와 동질성을 나누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다름’ 속에 존재하는 이들도 타자로 포함시킴으로써 함께 살아감이 가능합니다. 코스모폴리타니즘은 인간들을 분리시키는 다양한 경계를 넘어서 사랑, 연대, 책임적 삶을 살라고 하는 초대장과 같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함께 존재’해야만 살아갈 수 있음을 인식하고, 실제로 자신과 타자를 보는 시선도 무관심과 냉담함에서 따스함으로 조금씩 변화되어야 합니다.

‘코스모폴리탄 정체성’이란 인종, 성별, 국적, 종교 등으로 구분되는 “나/너-우리/그들”의 경계를 넘어서는 정의, 연대, 책임성의 윤리를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이며, 이러한 관계를 ‘우주적 시민’이라는 동료적 관계로 보는 시선과 개방성을 지닌 사람을 지칭합니다.

이러한 지구적 공동체의 이상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지칭한 성경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은유를 통해서, 한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 그 고통은 모든 사람들의 고통이며, 한 사람이 영광을 얻는 기쁨이 있으면, 그 영광의 기쁨이 모든 사람의 영광의 기쁨이라는 성경 본문(고전 12: 26-27)은 모든 인간의 상호의존성과 모든 인간이 마치 친척이나 가족과 같이 고통과 기쁨을 서로 나누는 우주적 공동체라는 코스모폴리탄 이상을 담고 있습니다.

2. 생각 쌓기

1) 분리와 분열의 공동체

고린도전서에는 고린도 교회의 분열이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신앙공동체는 왜 분쟁이 있었을까요? 대표적으로 유대 기독교와 헬라 기독교와의 분리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와 베드로가 중심으로 활동하던 예루살렘 교회와의 신앙적인 갈등으로 결국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고린도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도 분파가 생겼습니다. 바울 파, 아볼로 파, 게바 파, 그리스도 파로 나뉘었습니다.(고전 1:12)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에 따라서 파가 나뉜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쓴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런 분리와 분파주의를 경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2) 다름이 틀림은 아니다 - 상호 인정

때때로 우리는 나와 생각이나 취향, 세대와 성별과 삶의 스타일, 심지어 피부색과 정치 성향이 다르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르다고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름을 인정한다는 것은 나와 견주어 다름(different)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의 다름(alterity)을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로의 다름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을까요?

다양성을 존중하며, 예찬하는 일입니다. 존재와 세대와 직분과 은사, 취향 등 서로가 한 몸을 이루는 다양한 지체임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로마서 12:4-8을 읽어봅시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롬 12:4-8).”

■ 참된 공동체가 지녀야 할 모습에 대해 나누어 봅시다.

흔히 공동체를 나타내는 단어를 ‘community’라고 하는데, ‘함께’, ‘더불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com’이라는 단어와 ‘하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unity’라는 단어의 합성어로 볼 수 있다. 즉 “함께 하나가 된다”는 근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는 함께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기억하고 실천할 때 가능합니다.

3)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돌보라 - 상호 존중

바울은 교회 일치가 교회의 정체성이며, 본질이라는 사실을 본문에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몸으로 비유합니다. 1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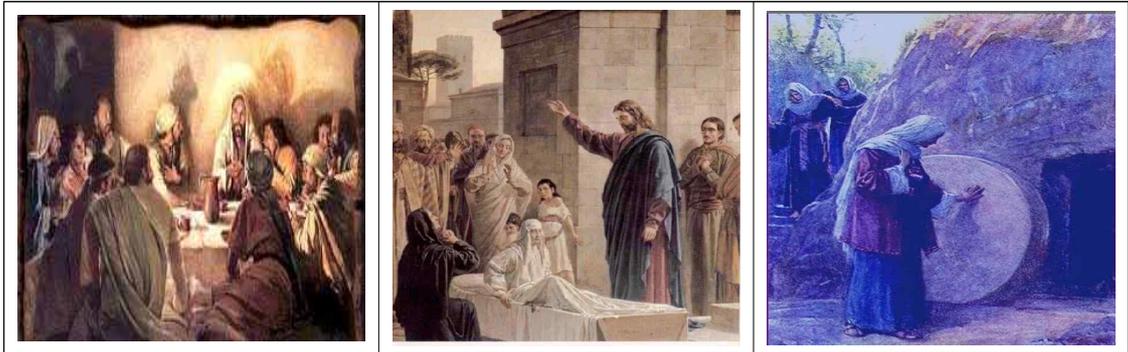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 고전 1:12의 말씀을 해석하고 우리의 상황에서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어떤 원리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않다는 식으로 서로 분리하려고만 하거나, 약한 지체를 서로 돌보고 싶다고만 하는 그들 앞에서 높아지고, 우월감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교회에서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건강하게 이루어야 합니다.

이러한 연습과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랑과 섬김이 이웃과 자연, 북한과 세계로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3. 말씀 속으로 : 하나님의 창조 섭리 - 평등성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과부의 아들을 살리심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
-------------	-------------	--------------

1) 계층적 갈등문제

■ **눅 15:1-7(세리 및 죄인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읽고 생각을 나누어 봅니다.**

[Key Point] 누가복음은 사회적인 약자(social outcasts, the tax collectors and sinners)에 대한 관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Teaching Tip] 마태복음 18:10-14에서의 잃은 양 한 마리는 교회 공동체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의 잃은 양 이야기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모여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리관들이 이를 비난하니 잃은 양 한 마리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 잃은 양 한 마리는 세리와 죄인들, 특정 대상이 구체화 되어 있습니다.

2) 경제적 갈등문제

■ **눅 7:11-15(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를 읽고 생각을 나누어 봅니다.**

[Key Point] 당시 가장 가난한, 존재적 가치가 결여된 인물들 중 하나가 과부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과부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과부에게 여성, 어머니로서의 존재적 가치를 회복시켜 주신 사건입니다.

3) 남녀 갈등문제

■ **눅 8:1-3를 읽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여성들의 역할을 말해봅니다..**

[Key Point] 갈릴리 사역에 등장하는 여성들
 예수님 주변의 여성들은 경건했으며, 증언하는 역할을 부여 받았습니다.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여러 여자들이란 표현을 하며, 자신들의 재산들을 갖고 섬겼다고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4) 예수님의 선포와 사역

■ **누가복음 4:18-19**
 18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Key Point] 세상의 모진 곳, 왜곡된 시스템, 부정의 한 것들을 예수님이 평탄하게 바로잡고자 역할을 했던 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Teaching Tip] 예수의 본질적인 역전의 목적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올바른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적 가치가 “창조주” 하나님의 시각에서 다시 정의되어야 합니다. 즉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평등성입니다. 한 사람의 존재적 가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중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경제적 논리에 의해 가치나 평가가 절하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전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만민이 평등하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구원의 목표이며, 하나님의 창조의 회복되는 것 - “희년”(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의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4. 삶 속으로

[Activity] 분단(지역, 이념, 정치외교, 마음)의 아픔을 알고 해결하는 피라미드 토론



“어떻게 하면 남과 북이 참다운 인간성과 공동체의 회복이 가능할까?”를 디자인 싱킹(Design Thinking) 합니다. 먼저, 나의 통일과 나의 소망을 적어보고 서로 비전을 나누며 공감한 후 문제와 대안을 모색해 갑니다.

* 피라미드 토론 절차 (<https://www.youtube.com/watch?v=AmDGbiQ-C3M>)

- ① 제시된 주제와 관련된 질문에 관해 각자 세 가지를 메모지에 적는다. 작성한 내용은 낱말 하나여도 되고 문장이어도 괜찮습니다.
- ② 각자 기록한 세 가지를 갖고 옆 사람과 1대 1로 짝을 이루면 여섯 장이 될 것입니다.
- ③ 작성한 내용 가운데는 같은 내용도 있을 것이고 같은 내용이라도 표현을 달린 것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토론과 토의를 해서 이들 카드 여섯 장을 세 장으로 줄입니다. 줄이는 과정에서 짝에게 자신이 적은 것을 보여주면서 왜 자신이 적은 것이 주제와 관련된 것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자기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표현하고, 대화로써 설득합니다.
- ④ 이런 과정을 거쳐 2+2, 4+4, 8+8로 확장하면서 점차 카드를 압축해 갑니다.
- ⑤ 전체 참가자가 두 모둠으로 나눌 때까지 토론을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 ⑥ 두 팀의 내용을 놓고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마지막 합의를 거쳐 완성된 의견을 모읍니다.



- 1) <http://www.kidd.co.kr/news/206720>
- 2) capitolhilloutside.com
- 3) <https://www.hani.co.kr/arti/PRINT/862547.html>
- 4) <https://www.yna.co.kr/view/AKR20160913143700009>
- 5) <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211>
- 6)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oid=021&aid=0002278276>
- 7)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121>

- 8) <https://cm.asiae.co.kr/article/2019112505550916725>
- 9)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730013001>
- 10) <https://www.dh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1>
- 11) <https://busan.fnnews.com/news/202103071742562896>
- 12) <http://www.missiontoday.co.kr/news/2894>
- 13) <http://m.ikorea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0743>
- 14)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090525/8735880/1>
- 15)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2270601327645>
- 16) 강남순, 『코즈모폴리터니즘과 종교』(서울: 새물결플러스, 2015).